

“양질 일자리 창출...청년이 머물고 싶은 광주로”

‘2026년 인구정책시행계획’ 확정

1조5천164억 투입 135개 과제 추진
미래산업 육성 청년인구 유출 대응

광주시가 미래전략산업과 인재 양성을 축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체질 전환에 나선다.

광주시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 총 1조5천164억원 규모의 ‘2026년 광주시 인구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인 청년인구 유출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광주시는 미래전략산업과 청년 지원 정책을 결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광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인구정책은 ▲아이키움 안심사회 조성 ▲일자리 중심 인구 유입 ▲활력있는 도시공간 조성 ▲미래 인구구조 적응력 제고 등 4대 전략, 135개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특히 ‘일자리’와 ‘청년’ 분야 신규 사업이 눈에 띈다.

자율주행 실증사업과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을 통해 미래전략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의료산업 실증·상용화 생태계 구축, 미래모빌리티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확대한다. 또 암(Arm) 스퀴 설립과 라이즈(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으로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지역 내 취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4대 전략의 ‘아이키움 안심사회 조성’(41개 사업, 517억원)은 출산·양육·의료·돌봄을 아우르는 ‘아이키움 올인(ALL-IN) 4대 케어’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 손자녀 가족 돌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일자리 중심 인구 유입’(52개 사업, 9천102억원)은 AI·미래차 등 전략산업 육성과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활력 있는 도시공간 조성’(21개 사업, 4천975억원)은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여건을 높인다.

‘미래 인구구조 적응력 제고’(21개 사업, 570억원)은 통합돌봄 체계 고도화, 고령사회 대응, 외국인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한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출산 지원 확대와 고령사회 대응 기반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의 보완 방향도 논의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7월 320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이 광주로 오는, ‘인 서울’이 아닌 ‘인 전남광주’의 시대가 열린다”며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문화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부강한 신경제특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서구기독교교단協, 돌봄이웃 지원 후원금 기탁
광주 서구는 3일 구청장실에서 강정원 서구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으로부터 돌봄이웃 지원을 위한 후원금 850만원을 기탁받았다. (광주 서구 제공)

‘남도한바퀴’로 만나는 23개 테마 봄 여행

합리적 가격 전남도 대표 관광 상품
꽃·정원·섬·바다·남도미식 등 다채

전남도가 봄나들이 시즌을 맞아 관광지 순환 버스 ‘남도한바퀴’ 봄 여행코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상춘객 물이에 나섰다.

남도한바퀴는 버스를 타고 다양한 여행코스를 최소 1만2천900원의 합리적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전남도 대표 관광상품이다. 코스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알찬 해설까지 곁들여져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다.

이번 봄 코스는 아름다운 봄꽃과 정원, 수려한 섬과 바다, 남도 미식 등을 만끽할 수 있는 23개 테마 코스로 구성됐다. 3월부터 5월까지 운행한다.

봄 정취 가득한 주요 코스는 ▲섬진강 벚꽃 즐긴다는 곡성·구례 봄꽃여행 ▲꽃과 예술, 숲길 이어우리진 신안·함평 슬로여행 ▲봄꽃과 다도해 오션뷰가 일품인 고흥 속삭임·금강 8경 여행 ▲선암사와 오동도·향일암으로 이어지는 여수·순천여행 ▲초록에 잠기는 담양·장성 김강스어행 ▲레트로 감성 가득한 목포·무안 시간여행 등이다.

특히 5일 개관하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코스도 신규로 포함돼 눈길을 끈다. 남도 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수려한 영산강 뷰까지 관람



전남도가 봄꽃과 정원, 섬, 바다, 남도 미식 등 23개 테마 코스로 구성된 ‘남도한바퀴’ 봄 여행코스를 출시하고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사진은 구례 화엄사 흥매화. (전남도 제공)

할 랜드마크로 여행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도한바퀴 봄 여행코스의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www.kunhoaround.com)이나 콜센터(062-360-8802)에서 안내받고 예약할 수 있다. 남도한바퀴는 계절마다 색다른 코스를 운영해 관람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탑승객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2만3

천여명이 이용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남도한바퀴는 전남 곳곳의 매력적인 명소를 한데 연결해 버스로 편하게 즐기는 여행상품”이라며 “남도한바퀴 봄 여행코스와 함께 전남의 봄을 한껏 만끽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김재정 기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

최대 100%...업체 경영부담 경감

전남 건설경기 회복 마중물 기대

전남도는 3일 “건설산업 활력을 높이고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민간 건설현장 중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한 원도급사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이는 장치다. 하지만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해 영세·

중소 하도급 업체에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다.

전남도는 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 올해부터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100%로 올려 하도급 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원·하도급 간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한 원도급사로, 업체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불합리한 제도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현장 체감형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전기이륜차 100대 구입 보조금 지원

광주시는 3일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사업비 3억3천800만원을 투입,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계획 물량은 상반기 60대, 하반기 40대 등 총 100대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1대1 매칭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경우 보조금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상업용 전기이륜차를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는 오는 6월30일 오후 6시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오는 12월31일 오후 6시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변은진 기자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